모두와 함께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10가지 방법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와 강점, 그리고 약점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참여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기보다 다른 이들의 결정에 따라야 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몸입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비장애인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더 신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여전히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의도적으로 포함하고 배려하지 않는다면, 교회 역시 그만큼 결핍을 겪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하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 조언을 나눕니다.

1. 첫인상에 주의하세요.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무엇을 이해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생각은 잘 표현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반대로 말하는 데는 능숙하지만 상대방의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매우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시각 장애가 있다고 해서 청각 장애가 함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각 사람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깊이 알아가려 노력해 보세요.

2. 기본적인 예절을 익히세요.

사람을 존중하는 언어 사용부터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과의 적절한 개인 공간 이해까지, 장애에 대한 기본적인 예절은 단순해 보이지만 막상 떠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5분만 투자해 기본적인 내용을 익혀보세요 (bit.ly/DisabilityHospitality). 사람들을 더 자신 있게 대할 수 있고,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휠체어 경사로뿐 아니라 마음의 경사로도 놓으세요.

공동체에서 첫 친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이 교회에 처음 들어올 때, 먼저 다가가 친구가 되어줄 사람들을 미리 정하고 준비시켜 보세요. 이들이 다른 교인들을 소개하고, 공동체가 배울 수 있는 올바른 관계 맺음과 소통의 본보기가 되도록 격려해 주세요. 사람들과 어울리기 쉽지 않은 이들도 마음속으로는 우정을 깊이 갈망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관계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사회적 경사로'가 되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4. 누구나 쉽게 예배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하세요.

큰 글씨로 된 주보, 찬송가, 성경은 사람들이 예배에 더 쉽게 참여하도록 돕습니다. 나아가 교회 이메일로 예배 자료를 발송하거나, 주보에 QR 코드를 넣어 주보, 찬양 가사, 예배 순서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도 접근성을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휴대폰이나 태블릿으로 글자를 확대할 수 있고, 시각 장애인은 화면 판독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자폐나 불안 증세가 있는 이들의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습니다. 교회 음향 시스템과 연결된 청각 보조 시스템(hearingloop.org)은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예배 경험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배에 실시간 자막과 수어 통역을 포함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 보세요.

5. 모든 아이들이 배우고 자랄 수 있는 교회를 만드세요.

장애가 있는 아이들과 그 가족들은 종종 주일학교 교사가 "죄송하지만, 더는 못 하겠어요!"라며 지친 마음으로 포기할 무렵 교회를 떠나곤 합니다. 교사와 교육부 사역자들이 모든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와 지원을 제공해 주세요(bit.ly/DCvideotraining). 도움이 필요한 교실에 교사를 한 명 더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과 교사, 가족 모두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6. 장애가 있는 사람의 가족도 함께 기억하세요.

장애가 있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부모나 가족들은 일상 속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트나 주말 여행을 위한 돌봄 지원, 봄맞이 청소나 장보기 같은 작은 도움도 온 가족에게 진심 어린 배려와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7. 묻고 경청하세요.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장 유익한 정보가 바로 눈앞의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자폐가 있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조언들이 모든 이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각 사람마다 좋아하는 방식, 생각, 목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직 해보지 못한 것 중에 꼭 시도해 보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와 같은 질문을 주저하지 마세요. 단, 대화를 시작했다면, 실제로 그에 따른 행동을 할 준비도 함께 해야 합니다!

8. 모든 이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모색하세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설계 개념을 예배 환경에 반영해 보세요. 다양한 좌석 옵션을 마련하고, 예배를 온라인과 대면으로 모두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이 듣는 것만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시각 자료나 체험 중심 학습을 함께 활용하면, 지적 장애가 있는 이들이 예배에 더 깊이 참여할 수 있고, 영어를 제2언어로 사용하는 이들처럼 다양한 예배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bit.ly/CICWuniversal에서 확인해 보세요.

9. 모든 이에게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 중에 주변 사람들에게 방해로 느껴질 수 있는 소리나 움직임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는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행동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신 방식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 안에서 환영받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이를 위해 먼저 따뜻하게 맞이하고, 유연하며 배려심 있는 태도를 보이며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가족이나 돌봄 제공자 외에는 깊은 관계를 맺을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그룹 사역의 범위를 넓혀 장애인들을 품어보세요. Together Small Groups 스터디(withministries.org/together)가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10. 모두가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은사가 있으며, 우리 모두가 그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모든 이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세요. 예상보다 훨씬 다양한 가능성이 열릴 것입니다. 특히 장애가 있는 이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섬기고 싶은지 먼저 물어보세요.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없는지 미리 단정 짓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 자료는 Thrive 교회사역부에서 제작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사역 지원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thrive@crcna.org로 연락 주세요.

810503